여래종 60주년…“미래 100년 보살행”

10월 3일 옥천 대약사사서 법회
인왕 대승정 공덕비 제막식 열려
명안 스님 “유지 이어 전법 진력”
‘여래본문 보살행 7대 서원’ 천명

옥천=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여래종은 10월 3일 옥천 총본산 대약사사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6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 스님)이 창종 60주년을 맞아 전법 원력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자비와 보살행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여래종은 10월 3일 옥천 총본산 대약사사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6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종단의 60년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 전법과 수행의 방향을 정립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여래종 종단 스님들뿐만 아니라,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 원불교 김대선 법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법회에 앞서 창종주 인왕 대승정 공덕비와 창종 60주년 중흥대비 제막식이 엄수됐다. 종단 원로·중진 스님과 내외귀빈, 신도들은 종단의 기틀을 닦은 인왕 대승정의 뜻을 기리며 중흥을 발원했다.

기념법회는 호법원장 도혜 스님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연화합창단의 집회가, 황금목탁·지장회 육법공양팀의 육법공양, 삼귀의례, 찬불가, 법혜 스님이 집전한 독경 ‘자아게’, 교육원장 무극 스님의 축원문 봉독으로 이어졌다. 원로원장 석산 스님은 ‘인왕송’을 통해 종단의 창종 정신과 수행 원력을 되새겼다.

이어 여래종 원로 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종교가 부르짖는 단 하나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에 있다”며 “모자라지도 않은데 모자랄까 봐 전전긍긍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플까 봐 전전긍긍하며 오지도 않은 일에 얽매여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속아 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성내지 말고, 늘 마음과 혀끝에 ‘감사합니다’라는 다섯 글자의 화두를 품고 오유지족(吾唯知足)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명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법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진리”라며 “창종 60년이라는 세월의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종단을 개산하신 인왕 큰스님의 유지를 오롯이 받들어 부처님 법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부대중이 하나 된 원력으로 지혜를 모아 전도·전법·전승에 정진하는 여래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지난 60년간 종단 발전과 사암 포교 현장에서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 연화합창단의 찬불가 ‘묘법연화경, 보현행원’ 음성공양과 함께 문도회장 묘선 스님이 ‘100년 함께 하는 여래본문 보살행 7대 서원’을 낭독했다. 7대 서원에는 여래법의 진리를 믿고 일상에서 감사·은혜·보은을 실천하며 생명평등과 공생·공영·공존의 대자대비를 구현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아울러 ‘중생이 곧 보살이며 보살이 곧 여래’라는 믿음으로 전법과 전승에 힘쓰고, 화해·용서·참회로 수행자의 위의를 지켜가겠다는 원력이 표명됐다.

한국불교여래종은 이번 창종 6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일상 속 ‘여래행·보살행’ 실천을 확산하고, 종단의 창종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해 100년 대계를 열어갈 방침이다.

‘나는 절로’서 뉴진 스님과 ‘극락파티’

11월 7~8일, 한국문화연수원서
10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이번에는 뉴진 스님과 함께 청년들의 인연을 잇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진행되는 ‘나는 절로, 극락파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뉴진 스님’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불교문화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개그맨 윤성호 씨가 함께해 특별함을 더한다. 뉴진 스님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선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극락파티’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기존 ‘나는 절로’가 진중한 만남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유쾌함을 더해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대일 로테이션 차담, 랜덤 데이트, ‘불멍’ 데이트 등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종교 관계없이 충청권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과 연관 있는 2030세대 미혼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를 참조해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추가 접수한 뒤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02-6334-2217

이현희 기자

명진 스님, 조계종 최고 법계 ‘대종사’ 추서

“수행과 사회적 실천 뜻 기려”
10월 9일 49재서 법계증 봉정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22일 원적에 든 명진 스님〈사진〉에게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大宗師)를 추서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 스님)는 10월 6일 회의를 열고 명진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대종사는 오랜 수행과 종단 및 사회에 대한 공적과 지도력을 갖춘 스님에게 품수된다. 조계종은 오랜 기간 수행과 사회적 실천에 힘써온 명진 스님의 뜻을 기려 대종사 법계를 추서하기로 했다.

대종사 추서는 10월 9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명진 스님의 49재 막재에서 이뤄졌다. 이날 법계증을 비롯해 대종사를 상징하는 25조 가사와 휘장이 봉정됐다. 진우 스님도 참석해 명진 스님의 수행과 삶을 기리는 추도사를 전했다.

임은호 기자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배우 이재용



불자 배우 이재용 씨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재용 배우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11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 배우는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짜장 공양 등 아름다운동행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며 대중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함께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비 실천 활동에 대해 적극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기대했다.

이현희 기자

음악회와 강연으로 ‘마음의 쉼’

조계종 2026 불교문화대전
10월 14~16일 조계사서 열려



바쁜 일상 속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쉼’을 선사할 불교 문화의 장이 서울 조계사에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2026 불교문화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불교의 가르침과 문화를 친근하게 접하며 일상 속 마음의 여유를 찾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마음의 쉼’을 주제로 ‘마음 쉼 토크’, 음악회, 강연, 불교도서전, 팝업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음 쉼 토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토크콘서트로, 14일과 15일 오전 11시 20분 조계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14일은 BTN 불교TV ‘가피’ 진행자 광우 스님, 15일은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혜주 스님이 강연자로 나선다. 두 스님은 포스터 QR코드로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의 행복, 관계, 삶의 의미 등 고민에 불교적 지혜와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불교문화강연은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최원석 프로젝트렌트 대표가 ‘불교는 이 시대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주제로 불교 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과 소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설무대에서는 음악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정오의 음악회’가 펼쳐져 싱잉볼·핸드팬을 비롯해 국악, 재즈,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야외 책마당에서는 ‘불교도서전’이 상시 운영된다. 불교·인문·명상·마음 치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불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도반HC의 불교 굿즈샵 붓쯔 팝업전도 함께 열려 눈길을 끈다.

배희정 기자



사진으로 되짚는 한국불교 발자취 태고종중앙회가 10월 7~12일 서울 인사동 라메르갤러리에서 ‘2026 한국불교역사문화사진전’을 개최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사진 60여 점이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재)한국불교여래종 창종60주년 기념법회 성료 및 감사인사



한국불교여래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에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사부대중과 모든 인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60년의 원력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전하고 한국불교의 발전과 중생의 안락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한국불교여래종이 되겠습니다.

(재)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사부대중 일동